

학교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이 다문화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 향상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¹

장철순²·신창섭^{3*}·장병순⁴·Md. Omar Sharif⁵

Effects of Forest Healing Programs Using School Forests on Language Acquisition and Ego-resilience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¹

Cheoul-Soon Jang², Chang-Seob Shin^{3*}, Byung-Soon Jang⁴, Md. Omar Sharif⁵

요약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숲이 가지고 있는 산림치유인자들과 요인들을 활용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향상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대상은 청주시 OO동에 위치한 다문화예비학교 중학생 남녀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실험기간은 2018년 4월12일부터 2018년 6월26일까지 매주 1회씩 12회기로 1시간 (60분)씩 실시하였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고 그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은 긍정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친밀행동능력, 감정조절능력, 자율행동능력 등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01$). 언어능력향상은 기술통계로 알아본 결과 쓰기의 오류, 발음의 오류, 문장의 오류, 시제의 오류, 조사·접속사의 오류 모두에서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중도입국자녀들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언어습득향상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숲체험, 산림 테라피, 웰니스

ABSTRACT

A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grows, the interest in their education is also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rest healing factors on the improvement of language ability and ego-resilienc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 conducted an after-school forest healing program of ten male and te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of a multicultural preparatory school

1 접수 2019년 4월 4일, 수정 (1차: 2019년 5월 14일), 게재확정 2019년 5월 16일
Received 4 April 2019; Revised (1st: 14 May 2019); Accepted 16 May 2019

2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Forest Therap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 28644, Korea (jangme5406@hanmail.net)

3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교수 Forestr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 28644, Korea (sinna@chungbuk.ac.kr)

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덕중학교 진로인성부 교육복지사 Gyeongdeog Middle School, Chungbuk Cheongju 28405, Korea (yes38313@cbe.go.kr)

5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박사과정 Forestr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 28644, Korea (sharif.aes@sau.ac.bd)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sinna@chungbuk.ac.kr

located in 00-dong in Cheongju, Chungnam Province. The experiment consisted of a total of 12 weekly one-hour (60 minutes) programs from April 12, 2018 to June 26, 2018. The forest healing program is an activity that uses the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exist in the forest to increase the immunity of the human body and restore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ego-resilienc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e conducted a paired *t*-test and analyzed with the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go-resilience significantly improved in all sub-factors including the positive thinking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intimacy ability, emotional adjustment ability, and autonomic behavior ability ($p < .00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language ability showed the improvement in writing errors, pronunciation errors, sentence errors, tense errors, and errors in research and connection.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improve ego-resilience and language acquisition ability of middle-entry children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FOREST EXPERIENCE, FOREST THERAPY, WELLES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의 흐름과 국제결혼 등의 성행으로 다문화사회, 글로벌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이 언어적인 문제와 사고방식의 차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주변 사회의 반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비행 및 범죄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언어적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차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Kim, 2015). 심지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부족에 갈등의 양상은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층적인 상호작용 과정은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사회적 부정응의 대상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숲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사물을 관찰하고, 숲에서 나는 소리도 듣고, 냄새 맡고, 열매도 맛보며, 만져보게 하는 오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Jang, 2017).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는 첫째,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 둘째, 어려운 가정형편, 셋째, 이국적인 외모와 서툰 한국어 때문에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이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다른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07).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겪는 학습에서의 어려움은 초등학교에서보다 중학교에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교과 내용이 전문성이 높아지고 개념어와 추상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Lee, 2018).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한 모색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Kim, 2011).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와 교과 학습의 결손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은 심각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다른 민족과 인종 및 문화를 다루는 방식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Lee, 2008).

한국어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는 의사전달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표현하는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문법규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국적의 저학년 학습자와 고학년 학습자에서 비슷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한국어 교재는 기능, 문법, 어휘, 발음,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교착어로 조사와 어미 등 문법이 발달하여 이 형태가 복잡하므로 한국어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Kim, 1994).

국어 교과서의 하위 영역 중 특히 쓰기 영역은 많은 선행연구(Lam, 2013; Kwon, 2009; Lee, 2008; Aan, 2007)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매우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글쓰기에 대

한 두려움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똑같이 겪는 현상이다(Sung, 2009).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resilience’, 혹은 ‘resiliency’ 라는 용어로 표기한다. 하지만 국내 연구자에 따라 한 가지 용어로 통일되지 못한 채로 ‘탄력성’, ‘회복력’, ‘회복탄력성’, ‘적응 유연성’, ‘자아탄력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Kim, 2010). 중학생 시기의 아이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초기전환기로 이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사춘기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안, 우울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전반적인 개념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가치가 없고 문제가 많으며 사회에 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자신의 행동, 정서, 관계를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숲을 활용해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을 한 후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 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다문화 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녀 각각 10명으로 방과 후에 학교 숲을 활용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적어보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다문화 배경 학생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과 사후 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실험설계를 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은 학생들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국적별 현황을 알아보면 우즈베키스탄 5명, 우크라이나 5명, 카자흐스탄 3명, 러시아 4명, 몽골 1명, 베트남 1명, 중국인 1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여학생이 10명, 남학생이 10명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명, 2학년 14명, 3학년 4명이다.

참여 학생들의 특징은 다문화 중학생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업을 따라 한국에 와, 다문화예비학교에 입학한 경우로 한국어는 아주 서툴렀다. 프로그램 참여는 이 학교 전문 상담교사인 교육복지사가 집단참여를 권유하여 학교 일과가 끝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oup(N=20)

Variable	Categories	Frequent	Percent(%)
Gender	Male	10	50.0
	Female	10	50.0
Grade	1	2	10.0
	2	14	70.0
	3	4	20.0
Nationality	Uzbekistan	5	25.0
	Ukraine	5	25.0
	Kazakhstan	3	15.0
	Russia	4	20.0
	Mongolia	1	5.0
	Vietnam	1	5.0
	China	1	5.0
Total		20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8년 4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연구대상자들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주 1회 60분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실시 장소는 K중학교 상담실과 학교 숲에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은 2회에 걸쳐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종료 후에 동일 설문지로 연구하였으며, 언어습득능력은 중학교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유 작문 쓰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1) 언어습득 능력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습득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KSL)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1(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2013)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국어 과목’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목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점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함께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 언어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2) 자아탄력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김미향과 김성희(2010)의 중학생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항목으로는 긍정사고 10문항, 문제해결 9문항, 감정조절 6문항, 자율행동, 7문항, 친밀행동 7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도와 신뢰도는 다음<Table 2>과 같다.

4. 산림치유프로그램

1) 산림치유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2인, 교육복지사 1인)와 프로그램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선정하였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Table 3>와 같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 실시절차

본 프로그램의 실시절차는 각 회기별 도입단계, 활동단계, 마무리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도입단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하였다. 활동단계에서는 약 40분가량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별로 주제가 주어졌다.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무리단계에서는 도입단계와 활동단계를 통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고 피드백을 해 주었다. 구체적인 산림치유프로그램은 <Table 4>과 같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각 척도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로 Cronbach' α 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유 작문 쓰기의 오류유형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셋째, 각 척도변인에 대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참가전과 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이하로 하였다.

Table 2. The item composition of each sub-domain and the coefficient of Cronbach's α

Sub-factor	Item count	Factor count	Cronbach's α
Affirmative thinking	10	2, 7, 12, 17, 22, 27, 31, 32,36, 38	.83
Problem solving	9	1, 6, 11, 16, 21, 26, 33, 37, 39	.81
Intimate behavior	7	5, 10, 15, 20, 25, 30, 34	.75
Emotion regulation	6	3, 8, 13, 18, 23, 28	.75
Autonomous behavior	7	4*, 9*,14*, 19*, 24*, 29*, 35*	.63
Total	39	39	.88

*: 역채점

Table 3. Forest healing program for each session

session	Program contents	Purpose	Forest healing factor
1	Getting to know the forest	Look around the school forests and observe the surrounding plants.	Five senses
2	Browse the same shape.	Find various shapes in the forest and collect similar shapes and talk about them.	Five senses
3	Plantar sensory play	Naturally barefoot walk through the forest and feel the sensation felt on the feet.	Touch play
4	Forest meditation	Choose your favorite place to meditate in the forest.	Forest meditation
5	Lying down watching the sky	I lie in the forest and look at the sky and feel the scent of wind and forest.	Taste, tactile play
6	Decorate with natural objects	We collect various natural materials and make various shapes.	Five senses
7	Touch the tree	I touch the various trees with my hands and smell them.	Touch play
8	A cool wind	Feeling the wind with the five senses, I feel nature.	Five senses
9	Try it like me.	After setting the tagger, follow the words and actions of the tagger.	Emotion play
10	We are one	Sitting round the forest floor holding hands face to see the story you wrote in mind.	Emotion play
11	What a shout !!	I'm sure in the woods to see and listen to the various sounds heard some noise We say what the sound.	Auditory play
12	Who am I ?	Discuss what I felt in the forest activities and what I am now.	Emotion play

Table 4. Forest healing program execution stage

Stare	Time(minute)	Content
Preparation	10	. Introduce programs about activities. . It induces motivation for the program.
Perfoming the program	40	. Observe and talk about plants that you can easily see around. . Walking through the school forest, listen to your feelings and write down your impressions and stories and pictures. . After getting familiar with the forest, sit in the right place and have him meditate.
Wrap up	10	. I tell feelings and thoughts that I felt. . To give feedback.

결과 및 고찰

1.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먼저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기초 통계 값은 실험 전에 총점이 116.750에서 147.100으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t=-16.637, p<.000$)을 나타냈다.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와 같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영역별로 알아보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사고(실험 전 $M=33.050, SD=6.099$, 실험 후 $M=37.850, SD=4.246$), 문제해결(실험 전 $M=27.700,$

$SD=2.903$, 실험 후 $M=33.350, SD=3.468$), 친밀행동(실험 전 $M=22.650, SD=4.145$, 실험 후 $M=26.900, SD=2.881$), 감정조절(실험 전 $M=18.100, SD=4.103$, 실험 후 $M=22.650, SD=2.703$), 자율행동(실험 전 $M=20.300, SD=50121$, 실험 후 $M=26350, SD=2.300$) 등 이다. 프로그램 전에 비하여 12 회기의 프로그램 후에 모든 하위영역에서 결과 값이 증가하였으며, t -test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국에서의 사회, 문화에 잘 적응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던 관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친밀감과 서로 간에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

Table 5. Ego-resilience test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post-test

Sub-factor	Before			After		t	df	p
	N	M	SD	M	SD			
Affirmative thinking	20	33.050	6.099	37.850	4.246	-5.157	19	.000**
Problem solving	20	27.700	2.903	33.350	3.468	-10.772	19	.000**
Intimate behavior	20	22.650	4.145	26.900	2.881	-9.920	19	.000**
Emotion regulation	20	18.100	4.103	22.650	2.703	-4.365	19	.000**
Autonomous behavior	20	20.300	5.121	26.350	2.300	-5.604	19	.000**
Total	20	116.750	7.418	147.100	11.001	-16.637	19	.000**

* $p < .001$, ** $p < .000$

로써 많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서로의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준 것이 주효하였다고 생각된다.

2. 언어습득능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2013)를 중심으로 평소에 언어사용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체험 보고서 형식을 빌려 자유롭게 소감 쓰기를 통하여 언어의 확장 능력을 알아보았다.

언어사용 및 자유 작문 오류를 보면 문장부호의 오류, 성분간의 호응관계 오류, 시제의 오류, 문장 성분의 생략, 조사 사용의 오류, 접속사 사용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6>와 같다.

언어습득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소리 나는 대로 쓰기는 80.0%에서 55.0%로, 발음의 오류는 77.9%에서 52.9%, 문장의 오류는 81.7%에서 53.3%, 시제의 오류는 78.8%에서 46.3%, 조사(접속사)의 오류는 81.7%에서 43.3%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학습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제의 오류나 작문의 오류, 화법의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탐구생활을 함으로써 동기부여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소감을 발표하고 자유 작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능력이 쓰기의 오류, 발음의 오류, 문장의 오류, 시제의 오류, 조사·접속사 사용

의 오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이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향상과 자아탄력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 다문화배경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수준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없으나, 본 프로그램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숲에서 나무를 만져보고, 숲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하고, 같은 또래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Lee,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Kim, 2015)의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콜라주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Kim and Lee, 2017)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다문화배경 학생들이 집단원간의 공감과 지지를 촉진함으로써 친구들과의 유대감과 공감 수용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욕구탐색을 구체화하고 강점이 되는 부분을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현실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해결력에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문제해결력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Lee and Lee, 2014)를 보고한 연구,

Table 6. Types of errors in writing free writing

Writing type	Examples	Before the experience		After the experience		Change before and after	
		Error number	(%)	Error number	(%)	Before (%)	After (%)
Error writing	마시썩요→맛있어요	15	75	9	45	80.0	55.0
	아라요→알아요	15	75	10	50		
	나에→나의	17	85	13	65		
	떠려져서→떨어져서	17	85	12	60		
Errors in pronunciation	잠 좋아→참 좋아	13	65	8	40	77.9	52.9
	색까리 많아요→색다른 색깔이 많아요	14	70	9	45		
	즐거워습니다→즐겁습니다	15	75	11	55		
	방울두리→빗방울들	18	90	12	60		
	비가 오면→비가 많이 오면	15	75	10	50		
	산책했어요→산책했어	16	80	12	60		
Error in sentence	놀고 가는 것→놀러	18	90	12	60	81.7	53.3
	아파요 내가→내가 아파요	15	75	10	50		
	친구들가요. 숲에→친구들이숲에갑니다.	18	90	12	60		
Errors of Tense	기분이 안 좋아요→기분이 많이 나빠요	16	80	10	50	78.8	46.3
	맛있게 먹어요→맛있게 먹었어요	15	75	8	40		
	비가 오기 후에→비가 온 후에	17	85	10	50		
	식당에 먹어요 밥을→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15	75	10	50		
	좋아요 숲에서 나는 냄새가→ 숲에서 나는 냄새가 좋아요	16	80	9	45		
Errors of investigation, use of conjunctions	오전은→오전에는	14	70	7	35	81.7	43.3
	산책합니다→산책했어	18	90	10	50		
	꽃이도 마음에 싫어요→꽃도 마음에 안 들어요	17	85	9	45		

중학생의 토요일 스포츠데이 참가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Kim, 2013),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이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Lee, 2018) 등 중재수단은 다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인 중재수단 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언어습득능력에 미치는 효과도 쓰기영역, 발음, 문장, 시제, 조사, 접속사 사용의 오류 모든 영역에서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숲에서 느낀 점을 감탄사로 표현하고, “We are one”, “Who am I”를 통해 우리는 하나임을 이야기 해가며 자아발견과 언어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도입국 자녀 중학생들의 쓰기 오류 분석연구(Jang, 2019), 다문화가정 학습장애 중학생의 국어 맞춤법 오류 유형 및 작문 오류 유형 분석(Shin,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Cha, 2015)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교실이 아닌 실외 학교 숲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서 학습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언어습득 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나 문제점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태도 변화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학교 가까운 곳에 숲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조성과 계절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중재수단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학교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배경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지만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학생들이 숲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숲에서의 교육이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유학기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an, W.S.(2007) Analysis of actual state of exp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Cha, E.H.(2015) A study on korean expression education for middle admission youth. A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at the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Jang, B.S.(2019) A study on writing error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sis of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Industry, Joongbu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Jang,C.S.(2017) Effect of senses experience in forest on young children's self-efficacy and creativ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H.O.(2010)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on the perceived competence, ego -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Dongdo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J.O. and K.M. Lee(2017) Effects of collage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enhancement of ego-resilience of young immigrant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3(1): 87-10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K.H.(2011) A study on writing method for multi-cultural children based on dialogism : Using media languag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K.S.(2015)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ego-resilience of youths in multi-cultural families. Han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ctoral thesi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M.H. and S.H. Kim(2010) Development of an ego-resilience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189-20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S. H.(2013)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aturday sports day on their ego-resilience and social competence.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Y.M.(1994) A study on effective korean writing guidance through error analysis.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Thesi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orean Language Course(201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n)
- Kwon, S.H.(2009)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use by multicultural stud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6(1): 195-2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am, M.H.(2013) Korean adverbial adverbs 'and', 'So So' in educational research. Master's Degree Thesis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n Educ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J.B.(2008) A study on the educational condi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K.Y.(2018) Effects of resilience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experience on self-resilie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hesis for Master's Degree b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M.K. and K.M. Lee(2014)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the ego-resilience of the low-income families' youth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1(2): (SN. 72), 499-51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R.R.(2018)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standard korean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improvement of textbooks of multicultural preliminary school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6) Results of the basic statistics of education in 2016. (in Korean)
- Shin, S.W.(2012) The analysis on type of korean language and composition error for middle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learning disabilities.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by Dankook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Social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2007)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n)
- Standard Korean 1.2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2013)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Darakwon Seoul. (in Korean)
- Sung, D.W.(2009) The Research on the realitie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bility to understand a vocabular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